

한국에는 개천절이라는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국기념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신화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개천절의 유래에 대해 쓰겠습니다.

옛날에 신의 아들인 단군이 많은 신하를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단군과 그의 신하가 내려온 곳은 태백산이라는 한국의 신들의 산이었습니다. 태백산에 정착한 단군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무지한 인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 싶다며 단군에게 부탁했습니다. 단군은 호랑이와 곰에게 마늘과 쑥만 먹으며 어두운 동굴에서 백일간 지내면 인간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도 곰도 잘 생활했지만 참을성이 없었던 호랑이는 곧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곰은 혼자서 백일을 채우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단군과 결혼했습니다. 단군은 홍익인간이라는 모토로 천년이상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날이 개천절입니다.

단군의 신화는 현대의 사람들이 전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군은 한국의 국민, 한국의 민족에게 정신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개천절은 한국인이 한국인이라는, 또 반만년의 역사를 느끼게하는 정신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